



이근 · 주경철 · 이준협 · 우경봉 · 옥우석 저,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권혁욱 일본대학 경제학부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큰 주제를 일관된 관점에서 기술한 책들은 기존의 학문 분야에 큰 시사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왔다. 이 책은 편저자인 이근 교수가 중심이 되어 10년 이상에 걸쳐 연구해온 후발국의 추격에 대한 연구의 도달점을 보여준 결과물인 동시에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갈 많은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역작이다. 서평의 구성은 먼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이 책의 내용을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결과들과 비교함으로써 독창성과 우수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부수적인 성과를 간단히 평가한 후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서평에 갈음하고자 한다.

I. 그동안 국가의 흥망성쇠를 어떻게 이해해왔는가?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해서는 역사학과 정치학에서 많이 다루어져왔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문명의 흥망성쇠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의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와 폴 케네디(Paul Kennedy)가 군사비의 지출을 중심으로 강대국의 출현과 쇠퇴를 기술한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을 들 수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도 왜 세계에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가 존재하며, 가난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간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확대 혹은 축소되는가는 아주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이 중요한 연구과제에 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로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 슈페터(Joseph Alois Schumpeter)의 경제발전론, 신제도주의학파의 경제성장론을 들 수 있다.

먼저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솔로우(Solow)의 경제성장 모델은 정치, 사회, 문화적인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한 국가의 생산력은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과 이들을 결합시키는 방법인 기술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다. 이 모델에서는 자본축적과 기술수준이 다른 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서로 같아진다는 수렴가설(*convergence hypothesis*)이 성립한다. 이후 로머(Romer, 1990)에 의해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은 기술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는 솔로우의 경제성장 모델과는 다르게 기술 변화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내생적 성장 모델(*endogenous growth model*)로 확장되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술수준이 다른 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는 발산가설(*divergence hypothesis*)이 성립한다. 국가별, 지역별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분석의 결과는 솔로우의 경제성장 모델이 내생적 성장 모델보다 현실 설명력이 더 있음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슈페터는 그의 유명한 저작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에서 경제발전의 원천은 기업가 정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destructive creation*)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슈페터의 사상을 신고전학파의 일부인 내생적 성장 모델이 차용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진화경제학(*evolutionary economics*)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신제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에서는 경제성장의 원천을 다른 연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리, 기후, 문화, 혹은 정부정책이 아니라 제도라고 주장한다. 최근의 연구서로 애쓰모글루와 로빈슨(Acemoglu and Robinson, 2012)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가 있다. 이 책에서는 포괄적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의 존재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리, 기후, 문화가 같으나 국경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진 미국과 멕시코 마을의 확연한 빈부 차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차이,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 스페인이나 프랑스가 아니고 영국에서 발생한 이유 등의 구체적인 사례 비교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정태적인 비교분석뿐만 아니라 최초의 작은 제도적인 차이가 결정적인 분기점에 도달해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동학적인 과정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올슨(Olson, 1982)은 『국가흥망론(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을 통해 애쓰모글루와 로빈슨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올슨은 포괄적인 정치제도가 오히려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국가를 쇠퇴시킴을 보였다.

II. 국가의 흥망성쇠의 원인에 대한 본서의 이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 책은 국가의 번영과 퇴보를 가져오는 원인에 대해서 신고전학파의 주류경제학 방법론과 그에 대비되는 비주류경제학의 개념을 통합한 독창적인 모델의 관점으로 세계 각 지역의 국가들을 낱실로, 각 국가의 장기적인 경제의 흐름을 씨실로 삼아서 매우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책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야기 되어 왔던 지리, 문화, 정책 그리고 제도와 더불어 기술혁신에 의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의 방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의한 이질성과 경제성장의 결과가 수렴하지 않을 가능성에 의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각기 다른 저자가 국가별로 나누어서 독립된 논문의 형식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서도 같은 이론적인 틀을 각 국가에 일관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서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담보하고 있는 면이 높게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또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신고전 학파의 성장이론은 국가의 추격, 추월과 추락의 현상을 동시에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슈페터의 사상도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후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어렵고, 신제도학파의 주장에도 제도의 내생성 문제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오는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과 새로운 경로 창출(path-creating)이라는 관점에서 독창적인 이론 모델을 만들었다. 이 새로운 모델을 일본, 대만,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의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그리고 유럽의 아일랜드, 네덜란드, 덴마크에 적용해서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델과 다르게 국가의 추격, 추월과 추락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기 어렵고 기업가 정신도 부족한 후발국의 추격과 추월 현상도 납득할 수준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신제도학파에 남겨진 과제인 제도의 내생성 문제도 기술과 경제 변화, 제도와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7장에서 보여준 아일랜드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후의 갑작스런 추락 현상은 신고전학파의 성장이론과 고전적인 슈페터의 사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데 반해서, 외국자본을 통한 경제성장과 한계를 일관된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한 국가경제의 추격과 갑작스런 추락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제2장에서는 평자의 전문 영역인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흐름을 개관하면서 성장과 침체의 원인을 추격, 추월, 추락 경제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성공에 대해 잘 설명해온 스탠포드대학의 아오키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되어온 비교경제제도 분석(comparative system analysis)과 신제도주의 경제성장론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는 일본 경제의 침체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 책의 독창적인 모델은 일본 경제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경제이론이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존 주류경제학의 관점과 비주류경제학의 관점을 무리없이 통합해서 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을 일정 부분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한다.

III.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하는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틀을 확립하고 여러 나라에 적용해서 설명하는 이 책의 연구성과를 위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한 이론적인 틀은 과거에 있었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의 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존 국가의 흥망성쇠를 설명해온 경제이론의 대안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에서 이용한 이론적인 틀을 적용해 한국 경제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연구를 통한 대안이론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정부 정책과 시장의 흐름은 단기적이고 단속적인 변화가 많이 있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응급적인 대응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단기적으로 해야 하는 정책과 제도 변경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정확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서로 다른 발전 단계를 가진 국가들에 대해 일정한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 적절한 학술논문과 자료 그리고 경제성장에 관한 장기적인 데이터를 구축한 점은 후속의 다른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수적인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다.

참고문헌

-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2012.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London: Crown Business.
- Kennedy, Paul M. 1987.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Random House.
- Olson, Mancur.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s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Romer, Paul M. 1986.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pp. 71-102.
- Schumpeter, Joseph A.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Toynbee, Arnold. 1939. *A Study of Histor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